

현장시선



김형미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게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인해 지역경제는 위축되었으며 따라서 비대면 소비패턴으로 바뀌고 있다. 소비자들은 예전에 주머니 인근의 마켓을 통해 구입하던 생활필수품조차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구입하는 일이 늘어났다. 이러한 조류에 편승해 가장 보수적이라는 금융업무도 소비자들은 점점 비대면을 선호하고 있다. 가능한 모바일 폰으로 은행 업무도 처리하고 주식도 모니터로 시세를 확인해 매매를 한

달라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다. 하지만 금융업무가 편리해진 만큼 위험도 큰 것이 사실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12월 28일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해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소비자관련법을 발표했다. 특히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권익을 보호하며 고위험 금융상품과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존에는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해왔으나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해 소비자 보호 공백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6대 판매 원칙이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를 말한다. 6대 판매 원칙에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소

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확대되고 신설된 규정들이 있다.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하는 청약철회권, 금융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현저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상품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판매제한명령권 등을 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입증책임은 금융회사가 지도록 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시에는 금융회사의 고의·과실 입증책임은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 사건관련인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시 해당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가 신설됐다. 그리고 소비자 소액분쟁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소를 금지하는 조

정이탈금지제도 등이 신설되는 등 금융회사의 분쟁조정제도 무력화시도 예방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금융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어서 소비자 역량이 강화되고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지속 등으로 금융투자업계를 위장한 불법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불법업체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다가 투자금 출금을 요구하면 환급을 미루다가 잠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1332 민원상담실에 도움을 받거나 1372 소비자상담실에 상담을 요청하도록 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는 신속한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므로 변화하는 제도를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해 스마트한 소비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한다.

사설

57년만의 한파경보, 기상재해 대비 계기로

제주지역에 역대급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무려 57년만의 일이 다. 북극발 한파가 6일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제주에도 6월 초에서 7월 하순까지 49일간 발표된 것이다. 이번 최강 한파는 오는 10일까지 도 전역에 많은 눈과 강풍, 강추위로 적지않은 피해를 줄 전망이다. 한파경보가 내려진 7일 아침 한라산 윗세오름 최저기온이 영하 15.3℃까지 떨어졌고, 제주시 서귀포시 성산 고산 등 도 전역을 영하권으로 끌어 내렸다. 많은 눈이 산지와 중산간, 해안까지 쌓여 교통통제와 거북이 운행을 감수해야 했다. 기상청이 이번주 내내 한파를 예상, 피해예방을 적극 당부한데 이어 도 역시 비상근무체제로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력을 권고했다. 도로별 제설작업, 상수도관·계량기 등과 대응, 농작물 피해 예방 등의 특별관리로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이번 한파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때문으로, 제주의향후 대응책 마련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제주지역은 작년 1964년 한파특보 도입 이후 처음 발생한 것이다. 이번 최강 한파는 오는 10일까지 도 전역에 많은 눈과 강풍, 강추위로 적지않은 피해를 줄 전망이다. 한파경보가 내려진 7일 아침 한라산 윗세오름 최저기온이 영하 15.3℃까지 떨어졌고, 제주시 서귀포시 성산 고산 등 도 전역을 영하권으로 끌어 내렸다. 많은 눈이 산지와 중산간, 해안까지 쌓여 교통통제와 거북이 운행을 감수해야 했다. 기상청이 이번주 내내 한파를 예상, 피해예방을 적극 당부한데 이어 도 역시 비상근무체제로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력을 권고했다. 도로별 제설작업, 상수도관·계량기 등과 대응, 농작물 피해 예방 등의 특별관리로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열린마당

김영수도서관 그리고 도시재생



양창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팀장

김영수 도서관은 고(故) 김영수씨가 어머니 90회 생일을 맞아 모교에 기증한 것으로 제주도 최초의 학교 도서관이기도 하다. 내부에 들어서면 작은 기와집이 들어앉은 듯 독특한 구조에 채광, 통풍, 소재까지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만들었다 했던 고인과 정성의 흔적이 곳곳에서 느껴진다. 도서관에는 한옥방도 있고 아이 돌봄 공간도 있어 가족단위로 와서 책도 읽고, 이웃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훌륭한 도서관이 재탄생하기까지는 학교도서관을 마을도서관으로 개방하는 문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문제 등 많은 어려움

이 따랐다. 하지만, 기획 및 설계단계부터 시공까지 지역건축가와 주민, 학생, 전문가, 행정이 함께 참여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여러 문제들을 해결했다. 물론, 준공 후 운영관리도 주민 주도도 이어지고 있다. 도시재생 주체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매년 도서관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인 '김영수 도서관구들'과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가 주축이 되어 요일 관장제 운영, 독서프로그램 진행, 아이들과 부모님을 위한 열람지도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다. 이런 성과들이 모여 지난 2019년에는 생활SOC 공모 최우수상, 2020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의 영예도 안았다. 도시재생은 도시의 공간과 정체성을 살리고 여기에 새로움을 채워가며 또 다른 생명력을 불어 넣는 작업이다.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강화를 통해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확대될 예정으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뉴스-in

대통령 신년인사회 영상회의로 개최

사회적 거리두기 고려해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인사회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상회의로 개최. 이날 오전 각계 각층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인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온라인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 문 대통령은 신년 인사말을 시작하며 "신축년 새해, 신년인사회를 두 번 다시 없을지도 모르는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됐다"라고 소개. 부미현기자

제주은행 본점 이전 추진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인 제주은행이 제주시 본점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 제주시 노형동 소재 S빌딩 소유 건설사는 제주시 오현길 소재 제주은행 본점 이전 추진 계획에

따라 현재 S빌딩에 입주해 있는 금융기업 및 사업주에게 점포를 비워 줄 것을 요청. 제주은행 관계자는 "이전부터 본점 이전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다"며 "현 본점을 활용하는 계획 등은 이전이 확정되어야 나올 것 같다"고 언급. 고대로기자 10일까지 새별오름 출입 제한 ○...제주시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주말인 오는 10일까지 새별오름 출입을 제한하기로 결정. 이는 지난 6일부터 산간에 많은 눈이 내려쌓여 이번 주말 새별오름에 눈구덩과 눈썰매 인과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 시 관계자는 "새별오름 출입 제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밀집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만큼 도민과 관광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 문미숙기자

아동학대 늘어나는데 전담 인력 없으니

새해 벽두부터 아동학대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아동학대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전국적으로 학대피해 아동이 3만명이 넘는다. 통계에 잡힌 숫자가 이 정도다. 실제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도 아동학대 문제가 만만치 않다.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제주에선 2018년 657건, 2019년 1023건, 2020년(11월 기준 잠정치) 785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다. 이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18년 335건, 2019년 647건, 2020년 11월 현재 46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해당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매년 70~80%를 차지했다. 또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2018년 99명, 2019년 176명, 2020년 172명이다. 특히 부모로

부터 분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시·장기보호시설로 보내진다. 2019년 8명의 아동이 일시 보호조치됐고, 37명이 장기보호 시설에 들어갔다. 도내 학대피해 아동전문센터(5~7명 수용)는 모두 3곳이 마련돼 있다. 유지하다시피 제주지역도 아동학대 문제가 결코 가벼운 편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하자 대책을 내놓았다. 그중 대표적인게 전담공무원 신설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전국 시군구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우 전담공무원이 61명으로 파악됐다. 자치구 당 평균 2.4명이다. 하지만 제주 지역엔 현재까지 전담공무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 인력도 없이 아동학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의문이다. 앞으로 학대피해 아동들을 위한 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강동훈(삼달리장) 어머니 김해김씨 옥순(향년 93세)께서 서기 2021년 1월 7일 02시 12분경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1월 9일(토요일)
▶발인일시: 2021년 1월 10일(일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 삼달리 공동묘지
아 들 강동훈 며느리 박정희 딸 강공순 사 위 김현수 애순 (故)송취정 도순 (故)정희 공숙 진재민 애숙
※연락처: 강동훈 010-8661-0335 강공숙 010-9004-1122 강애숙 010-3694-4173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함양씨 춘색(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1월 8일
아 들 고현환 김순덕 딸 김민희 고환현 김민희 고환욱 이영미 딸 고송환 수자 사 위 김윤홍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양 강희봉(1954. 9. 8생)
최후주소: 제주도 서광로32길 26-6 (이도이동)
상거지는 2020년 11월 4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0년 12월 30일 제주지방법원 2020년 735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아래 민법 제10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정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제주도 광명중길 65-1, 701동 303호 (노형동, 드레모아저)
2021년 1월 8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강경수, 강경태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를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국인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신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키본·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네트워크 설비공사
▶전관방송 설비공사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환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부씨 순옥(향년 85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1월 8일
남 편 고용하 아들 고창범 딸 고가연 사 위 문영호

용강동 가족묘지용 매매 묘지허가 가능
연락처 010-6360-9167 010-7666-2310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